

## Post-Mimesis

### 1)보편적 해설

#### -- 김정범의 'Head' 시리즈

김정범의 Head 시리즈는 전통 도예기법과 현대 조형언어가 융합된 작품으로, 각각의 '머리' 형상은 인간 존재에 대한 다층적인 질문을 던진다.

#### 1. 형상과 색채의 상징

노란 얼굴과 파란 배경은 태양과 물, 빛과 의식의 이중성을 상징한다.

좌우 비대칭의 얼굴 구도는 자아의 분열성과 시간의 층위를 상기시킨다.

각기 다른 눈 모양, 입술 표현, 패턴 장식은 개인의 정체성과 기억을 반영하며, 관객에게 다양한 해석의 층위를 제공한다.

#### 2. 기호와 텍스처의 조화

스파이럴(소용돌이), 입체도형, 기하무늬 등은 고대 기호와 현대 디자인 언어가 공존하는 조형적 실험이다.

검은색 부조나 붉은 점, 점선은 신체와 감정, 에너지의 흐름을 상징하며, 신화적·우주적 스토리텔링의 맥락을 형성한다.

#### 3. 도예적 재료성과 회화적 감성의 결합

전통적인 세라믹 타일 기법에 회화적 색면 분할과 패턴이 결합되어 있다.

청화 백자 문양을 연상케 하는 파란색 영역은 동양적 감성과 프랑스에서 수학한 작가의 다문화적 조형 감각을 모두 반영한다.

이 시리즈는 단순한 '얼굴'이 아니라, 기억, 정체성, 문화, 시간의 층위를 시각화한 상징적 자화상이자 시대의 초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 2)과학자로서 해설

#### [비평문 | 김정범 'Head' 시리즈에 나타난 의식의 파편화와 기계적 은유]

김정범의 'Head' 시리즈는 단순한 도예 조형을 넘어, 인간의 정체성과 의식의 구조를 탐구하는 상징적 장치로 기능한다. 노란색과 파란색의 강렬한 대비, 얼굴의 좌우 분할, 추상적 문양들은 인간의 정신과 감정이 어떻게 기계화된 시대에 의해 해체되고 재조립되는지를 시각화한다. 특히 그의 도자기 작품 속 '얼굴'은 전통적 자화상이 아니라, 신경망 이미지와 데이터 패턴을 연상시키며 의식의 미메시스(모방)라는 현대의 기술적·철학적 질문을 유발한다. 이 작품들은 도자라는 전통 매체를 통해 테크놀로지의 시대에서 '인간이 무엇인가'를 되묻는다.

#### [큐레이터 전시 서문 | "의식의 표면들: 김정범의 Head 시리즈"]

우리는 지금, 인간의 뇌와 감정, 기억마저도 데이터화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김정범의 'Head' 시리즈는 이러한 현실에 예술이 응답하는 방식의 한 예입니다. 그는 전통 도자기 기법 위에 회화적 색채와 기호적 조형 언어를 결합하여, 단순한 얼굴 형상을 넘어서 '의식의 지도'를 그려냅니다. 작품에 나타나는 절단선, 기하 문양, 이질적 색면은 모두 우리 자아의 파편화와 기술문명의 간섭을 은유합니다. 이 전시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나'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사유하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관람객은 여기서 인간성과 기술성의 경계에 선 현대인을 마주하게 됩니다.

#### [철학적 평론 | 미메시스에서 뉴로미메시스로: 김정범의 도예가 묻는 인간]

플라톤의 미메시스가 '이데아의 모방'이었다면, 21세기의 미메시스는 '의식의 코드화'다. 김정범의 Head 시리즈는 고대 그리스의 미메시스 개념을 현대 뇌과학과 인공지능 시대의 철학적 맥락으로 확장시킨다. 그는 인간 얼굴이라는 보편적 상징을 통해, 자아와 정체성이 어떻게 기술에 의해 가공되고 재현되는지를 묻는다. 그 얼굴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상(icon)이 아니라, 디지털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감정의 시뮬라크르처럼 보인다. 김정범의 작업은 미적 오브제를 넘어 존재론적 질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과연, 생각하는 주체인가, 생각하게 만들어진 구조물

인가? 그의 도예는 인간의 뇌를 닮은 흙의 재질 속에, 시대의 철학을 새긴다.

그의 예술은 기술의 진보 속에서 인간의 본질을 되묻는 철학적 도전이다. 앞으로의 작업에서는 '의식 이전의 물질성', '비언어적 기억', '기계의 공감' 등으로 이어지는 철학적 지층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다. 김정범은 기술과 인간의 경계지대에서 예술의 새로운 윤리를 탐색하는 예언자적 작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글, 이윤경 박사(트리니티시스템)